
시장 대통령? 서민 대통령? 김문수는 절대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가 시장을 찾아 ‘시장 대통령, 서민 대통령’ 이 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김 후보는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도백이었습니다. 김 후보는 서민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2014년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발표한 정책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생활임금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두 번이나 거부했습니다. 결국 해당 조례안은 차기 도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하고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생활임금 조례를 김 후보가 거부한 배경에는 도의회가 통과시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개인의 업적을 위해 서민의 민생을 팽개친 것입니다.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검을 거부하고, 자신의 아집에 빠져 민생을 내팽개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무엇이 다르니까.

김 후보는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했던 사람입니다.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10년, 의류 소매업 상인들로 구성된 경기아울렛연합회는 파주 아울렛을 준비하던 신세계·롯데와 갈등을 빚습니다. 특히 신세계는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장을 강행합니다.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상인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상공인의 절규가 철저히 무시된 아울렛의 개장 자리에서 함께 팡파르를 올린 사람이 바로 김 후보입니다. 김 후보는 이후에도 프리미엄 아울렛을 확대해야 한다며 “경기도에 프리미엄 아울렛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당시 신세계 구학서 사장은 김 후보의 다음 선거에 500만원이라는 법정한도 최고금액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후보가 어떻게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 후보에게 경고합니다. 시장을 말하지 마십시오. 서민을 말하지 마십시오. 준비 안 된 극우 후보를 포장하기 위한 민생 코스프레에 현기증이 납니다.

2025년 5월 22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강득구, 부단장 정준호·박관천